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왼쪽)과 ‘브로커’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송강호가 29일(한국시간) 칸 팔레 데 페스티벌에 마련된 프레스룸에서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칸프랑스) |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칸 영화제 송강호 한국 최초 남우주연상·박찬욱 감독상

한국영화 사상 첫 ‘2관왕’

송강호 세계 3대 영화제 첫 남자연기상
‘괴물’ ‘밀양’ 등 7번 도전해 마침내 트로피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 3번째 트로피
“2관왕은 한국영화 위상 보여준 큰 사건”



FESTIVAL DE CANNES

배우 송강호(55)와 박찬욱(59) 감독이 세계적 권위의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란히 수상하며 한국영화 사상 최고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경쟁부문에 초청된 두 편의 한국영화가 동시에 수상한 건 처음이다. 이로써 한국영화는 2019년 ‘기생충’의 황금종려상에 이어 글로벌 위상을 단단히 다지게 됐다.

29일 오전 3시30분(이하 한국시간) 막을 내린 제 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송강호는 ‘브로커’로 한국배우 첫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박찬욱 감독은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품에 안았다.

●“위대한 예술가” 송강호의 성취 인정

2007년 ‘밀양’에 함께 출연해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전도연에 이어 칸에서 연기상을 받은 두 번째 한국배우가 된 송강호는 그 한 해 전 ‘괴물’을 감독주간에서 선보이며 칸과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밀양’과 ‘박쥐’(2009) 등 7차례 레드카펫을 밟은 끝에 영광을 안았다. 2014년 전도연에 이어 지난해에는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했다.

베이비박스를 소재로 한 ‘브로커’에서 입양 브로커역을 맡은 그는 이날 칸 팔레 데 페스티벌의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면서 “위대한 예술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브로커’ 연출자)께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칸이 이제야 ‘위대한 예술가’로서 송강호의 성취를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은 “진즉에 받았어야 할 상”이라며 “전도연의 여우주연상 이후로 소식이 없던 칸의 한국배우 연기상에 대한 아쉬움을 해소시켜줬다”고 말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송강호는 이미 칸에서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면서 “동시대 가장 뛰어난 배우로 수십 년 동안 활동해 왔던 그에 대한 존경심까지 담긴 상”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영화 경쟁력 확인” 축전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올드보이’의 심사위원대상, 2009년 ‘박쥐’의 심사위원상 이후 세 번째 트로피이기도 하다. 그는 24일 영화 공식 상영한 뒤 극찬 속에 작품상인 황금종려상 후보작으로 뽑혔다. 감독상 역시 그에 화답하는 ‘칸의 선물’이다.

영화제는 송강호와 박찬욱 감독의 동시 수상은 ‘기생충’의 성과에 버금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세계영화계의 중심에서 글로벌 위상을 과시한 한국영화의 쾌거라는 평가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2관왕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한국영화가 차지하는 위치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국영화의 고유한 독창성과 뛰어난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며 축전을 보냈다.

한편 이번 황금종려상은 스웨덴의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이 연출한 ‘트라이앵글 오브 셰드니스’가 차지했다.

▶ 관련기사 2면

(칸프랑스) |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레알 마드리드가 29일(한국시간)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벌어진 리버풀과 2021~2022시즌 UCL 결승전에서 1-0으로 이겨 통산 14번째, 4시즌만의 우승에 성공했다. 경기 후 빅이어를 들어올리며 기뻐하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 파리 | AP뉴스

‘R마드리드 천하’

리버풀 꺾고 통산 14번째 UCL 정상…역대 최다 우승팀
우승상금 269억원…9차례 선방쇼 골키퍼 쿠르투아 MVP



UEFA CHAMPIONS LEAGUE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리버풀(잉글랜드)을 꺾고 통산 14번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정상에 올랐다. 9차례의 ‘선방쇼’를 펼친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벨기에)는 결승전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레알 마드리드는 2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리버풀과 2021~2022시즌 UCL 결승전에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브라질)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2017~2018시즌 이후 4년만의 UCL 패권 탈환에 성공했다. 또 통산 14번째 ‘빅이어’를 들어올리며 UCL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경신했다.

두 팀의 UCL 결승 격돌은 이번이 3번째였다. 1980~1981시즌에는 리버풀이 1-0으로 이겼고, 2017~2018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3-1로 승리했다. 4년만의 결승전 리턴 매치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우승 상금 2000만 유로(약 269억 원)를 챙겼다.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탈리아)은 UCL에서 4번째 우승을 경험하며 최다 우승 사령탑이 됐고, 철옹성 같은 수비를 뚫낸 쿠르투아는 결승전 MVP에 선정됐다. 골키퍼의 MVP 수상은 2008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소속이던 에드윈 판 데르 사르 이후 14년만이다.

이날 경기는 관중 입장과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로 예정

보다 36분이나 늦게 키오프됐다. 외신에 따르면,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가짜 티켓’을 지닌 팬들이 경기장에 몰려 들면서 경기 시작이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레알 마드리드는 슈팅수에서 리버풀에 3-23으로 크게 밀렸지만, 쿠르투아의 눈부신 선방과 단 한 번의 기회를 살린 결정력 덕분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전반 내내 밀리던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14분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리자 비니시우스가 수비 배후공간을 파고들며 가볍게 밀어 넣었다. 이 한 방으로 승부는 갈렸다. 다급해진 리버풀은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쿠르투아의 침착한 선방에 연거푸 막혔다. 특히 후반 37분에는 모하메드 살라가 쿠르투아와 1대1 찬스까지 잡았으나 이 역시 쿠르투아의 손끝에 걸리고 말았다.

▶ 관련기사 3면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